

뉴스와 쟁점 | News & Issue

콜롬비아 카우디오 알바로 우리베의 귀환

안준모

2014년 6월 15일 실시된 콜롬비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중도당(Centro Democrático) 오스카르 이반 솔루아가 전(前) 재무장관을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선거결과 산토스 대통령은 51%를 득표하여 45% 득표에 그친 솔루아가 후보에 약 6% 앞섰다. 결선투표 끝에 산토스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상대후보였던 솔루아가 전 재무장관의 돌풍은 위협적이었다. 5월 25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 솔루아가는 29%를 득표하며 26%에 그친 산토스 대통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불과 2개월 전만 하더라도 10%~15% 사이의 지지율에 머물던 비인기 정치인이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선거에 임하는 대통령을 제치고 1차 투표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그렇다면 불과 2개월 만에 야당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위협할 만큼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일부 언론에서는 솔루아가 캠프의 노련한 선거 전략을 돌풍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네거티브 공격에 대한 침착한 대응,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 당선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선거 전문가 조세 에두아르두 영입 등 솔루아가 캠프의 선거 전략은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고 1차 투표에서 역전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선거 전략만으로 솔루아가의 폭발적인 지지율 상승을 설명하



알바로 우리베 (출처: infoteleantillas.com,do)

기는 어렵다. 술루아가 캠프의 막판 지지율 상승은 전적으로 민주중도당의 실질적인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알바로 우리베 전(前) 콜롬비아 대통령의¹⁾ 인기 덕분이다. 임기 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우리베 전 대통령은 68%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임기 말 발생하는 레임덕을 무색케 했다.²⁾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우리베 전 대통령은 산토스 대통령(36%)을 제치고 50%의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다.³⁾ 직선제로 바뀐 뒤 당선된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퇴임 시 지지율과 비교해보면(노태우 12%, 김영삼 7%, 김대중 24%, 노무현 21%, 이명박 25%) 우리베 전 대통령의 인기는 놀랍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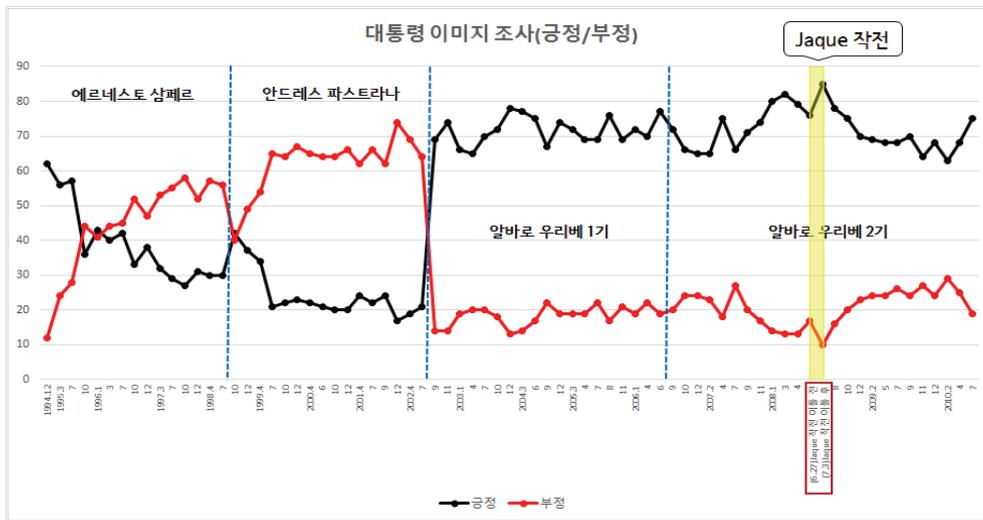
우리베 전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는 콜롬비아 현대 정치사에서

1) 정확히 말해서 현재 우리베 전 대통령의 신분은 '전 대통령 겸 상원의원'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 대통령으로서 알바로 우리베이기 때문에 모든 호칭은 '우리베 전 대통령'으로 통일한다.

2) <http://www.elespectador.com/noticias/politica/articulo201846-uribe-mantiene-su-imagen-favorable-un-68>

3) <http://www.caracol.com.co/noticias/internacionales/uribe-tiene-la-mejor-imagen-entre-los-colombianos-y-santos-la-mas-negativa/20140515/nota/2225361.aspx>

4)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2/07/09/20120709023012.html>



하케(Jaque) 작전: 2008년 7월 2일, 콜롬비아 정부군이 적십자단체로 위장하여 녹색산소당의 전 대통령 후보 잉그리드 베탄쿠르트(Ingrid Betancourt)를 포함한 인질 15명을 무력충돌 없이 구출해낸 작전. 이 사건으로 우리베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76%에서 85%로 단숨에 10% 가까이 상승했다. (Gallup(Colombia) Poll 2013. 06. 여론조사 결과 참조)

예외적인 현상이다. 1960년부터 2002년까지 콜롬비아 정계에선 인물론 보다는 소속정당(보수당, 자유당)이 선거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1948년 자유당 정치인 호르헤 가이타이 암살당하면서 민중은 분노했고 폭동(Bogotazo, 보고타소)이 일어나게 된다. 폭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폭력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계속되는 혼란을 막기 위하여 양당은 국민전선(1958년)을 형성해 보수, 자유당간의 기계적인 정권교체를 실시하기로 합의한다. 1970년 보수당 집권까지 16년간 국민전선 체제가 유지됐다. 이후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현실정치에 뛰어들었지만 기존 제도권 정치를 부정하는 게릴라세력의 존재와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1990년대까지 양당체제가 유지된다.

공고해 보이던 보수, 자유당간의 양당체제는 무소속 우리베 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우리베 전 대통령은 기존의 양당체제, 엘리트주의를 혁파하면서 등장했다. 비록 천일전쟁⁵⁾, 보고타사태

5) 콜롬비아 보수파와 자유주의간에 일어난 전쟁으로 1899년에 시작하여 1902년 평화협정 체결로 종료된다. 콜롬비아는 이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손실을 겪게

(bogotazo) 같은 양 정치세력간 격심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콜롬비아 정치는 오랜 기간 양당체제 전통을 유지해왔다. 멕시코의 경우 제도혁명당(PRI)이 70년간 사실상 1당 독재체제를 구축해온 것과 달리 양당이 교대로 집권하는 양당체제를 구축했다. 그렇게 이어져오던 양당체제와 유력 정치가문에서 길러진 엘리트들로 충원되는 콜롬비아 엘리트주의는 우리베 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다.

우리베 전 대통령이 양당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힘은 보스정치를 통해 확보한 열성적인 지지 세력으로부터 나왔다. 우리베 전 대통령의 보스정치는 열렬하고 견고한 지지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베 이전의 두 명의 대통령 임기 내 지지율을 비교해보면 우리베 전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인 인기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베 전 대통령은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능력도 뛰어나다. 이미 지난 2002, 2006 대선에서 54%, 62%로 두 차례 모두 과반의 지지를 얻어 결선투표에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처럼 우리베 전 대통령은 콜롬비아 현대 정치에서 보기 드물게 강력한 팬덤을 구축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언론과 SNS를 이용하여 현실정치에 개입했던 우리베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우리베 전 대통령의 카리스마와 그가 추구했던 정책에 호응하는 지지세력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한 번 세력화에 성공하며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었다.

먼저 지난 3월 콜롬비아 상원과 하원, 양원을 구성하는 총선에서 우리베 전 대통령은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히 했다. 우리베주의(Uribismo, 우리비스모)⁶⁾를 핵심이념으로 삼고 창당한 민주중도당은 총선에서

되었고 원래 콜롬비아 영토인 파나마를 잃게 된다.

6) 우리베주의는 3가지 요소로 압축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안보(강한 공권력을 바탕으로 불법 무장 세력을 소탕하자는 정책)를 추구하며 경제적으로는 기술관료제를 통한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외교노선에서 반(反) 카스트로-차베스주의를 표방한다.

2014년 3월 콜롬비아 총선 결과			
정당명	득표수/율		의석수
국가사회연합당	2,230,208	15.58%	21
민주중도당	2,045,564	14.29%	19
보수당	1,944,284	13.58%	19
자유당	1,748,789	12.22%	17
급진변화당	996,872	6.96%	9
녹색연합	564,663	3.94%	5
POLO 대안 민주당	541,145	3.78%	5
시민 선택당	527,124	3.68%	5

* 총선 투표율 76.34%, 총 10,952,592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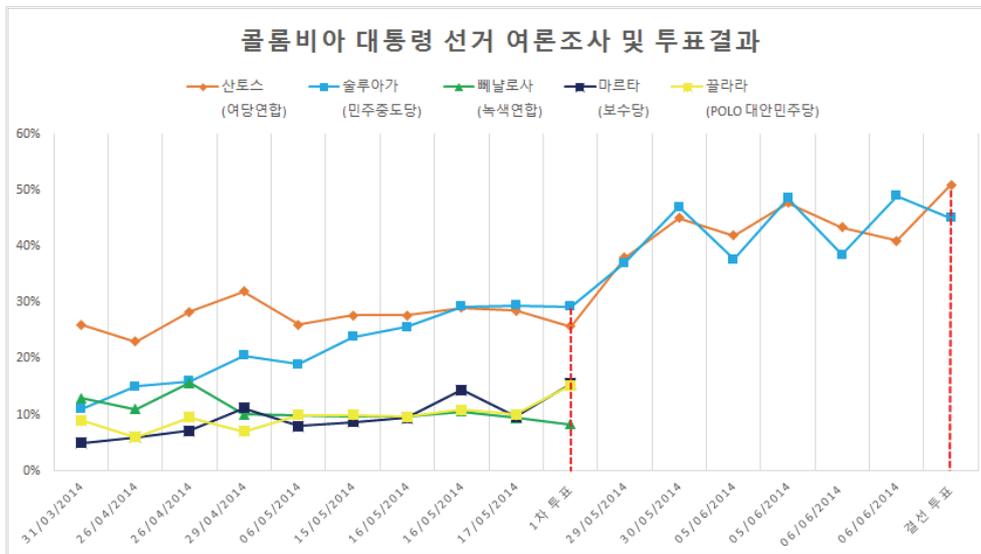
** 콜롬비아 상원 의석수는 총 102석이다. 100석은 전국 단위로 선출되는 반면 나머지 2석은 원주민행정구역의 원주민 공동체 의사를 대표한다.

(출처: Colombia.com)

2,045,564표(14.29%)를 획득해 총 100석의 상원 의석수에서 19석을 가져갔다. 창당한지 일 년이 조금 넘은 이 신생정당은 총선을 통해 원내 제2당 및 제1야당으로 등극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민주중도당이 획득한 표의 99.8%가 우리베 전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나왔다(콜롬비아 총선은 정당 혹은 후보자 개인에게 투표가 가능하다). 우리베 전 대통령은 총 2,040,852표를 획득하면서 총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2위를 차지한 POLO 대안 민주당의 엔리케 로블레도는 191,570표를 얻는데 그쳤다. 1위 우리베 전 대통령과 2위 로블레도 상원 의원간 격차만 1,849,282표. 총선 결과는 우리베 전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다.

총선에 이어 진행된 대선에서 우리베 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다. 전술했듯이 초반 부진했던 술루아가 전 재무장관의 지지율은 우리베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유세에 힘입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다. 1차 투표를 앞두고 방송된 선거광고는⁷⁾ 절반이 넘는 분량이 우리베 전 대통령의 육성으로 채워졌다. 광고를 통해 우리베 전 대통령은 술루아가 전 재무장관이 자신의 동지임을 강조했다. 우리베 전 대통령의

7) <http://www.youtube.com/watch?v=NsjirgVH6hg>



(자료원: 자료원: Datexco, Gallup, Cifras y Conceptos, Ipsos-Napoleon Franco)

적극적인 지원공세 덕분에 솔루아가는 5명의 후보가 난립한 1차 투표에서 1위(3,759,971표, 29.25%)를 차지했다. 우리베 전 대통령이 측면에서 솔루아가 전 재무장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탓에 산토스 대통령은 결선 투표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우리베 전 대통령은 민주중도당을 상원 제1당으로 만드는데 실패했고 솔루아가 전 재무장관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베 전 대통령은 산토스 대통령의 재선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선거 막판 솔루아가 전 재무장관의 집권에 반대하는 반(反) 우리베 좌파, 자유주의 세력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산토스 대통령의 재선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베 전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중도당은 상원에서도 제1당의 자리를 위협하였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 우리베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이 콜롬비아 정계에서 가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입증해 보였다. 야당 정치인으로 복귀한 우리베 전 대통령은 아바나에서 진행되는

평화협상을 포함해 사사건건 산토스를 집요하게 몰아붙이며 정계 영향력 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5년에는 콜롬비아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선거 때마다 인상 깊은 카리스마로 캠프를 진두지휘해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 내는 ‘선거의 왕’ 우리베 전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산토스 대통령을 어떻게 위협할지 지켜볼 일이다.

안준모 - 경희대학교 스페인어과 재학 중